

호반, 지역 건설사 '빅3' 등극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중흥 7년만에 100위권 진입

호반건설이 금광기업을 밀어내고 광주·전남지역 건설사 '빅3'에 등극했다. 또 중흥건설은 지난 2004년(97위) 이후 7년만에 100대 건설사에 다시 진입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중 전국 100대 건설사에 7개사가 랭크됐다.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금호산업을 비롯해 남양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광기업, 남해종합개발, 중흥건설 등이다.

지역 건설사 1위는 시공능력평가 액 2조2538억원의 금호산업이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645억원 늘었지만 전국 순위는 12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위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은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대형 토건 사업 강화를 통해 시공능력을 잘 유지했다는 평가다.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남양건설이지만 시공능력은 지난해(9899억

원)보다 30.6% 떨어진 6866억원을 기록해 39위에서 43위로 10계단 하락했다.

3위는 호반건설로 5969억원의 실적을 거둬 지난해 62위에서 49위로 경쟁 뛰면서 광주·전남 건설사 '빅3'에 등극했다.

다음으로 우미건설(4651억원) 56위, 금광기업(4311억원) 59위, 남해 종합개발(2423억원) 87위, 중흥건설(2310억원) 94위 등 이었다. 부동의 지역 '빅3'였던 금광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에서도 5위로 밀려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는 호반건설과 남해종합개발이 눈에 띄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09년 77위에서 지난해 62위, 올해 49위로 3년 사이에 28계단 상승했고, 남해종합개발도 2009년 122위에서 지난해 94위, 올해 87위로 35계단 급등했다.

이들 100위권 내에 진입한 7개사 가운데 중흥건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남 소재 건설사다.

■ 2011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상 광주·전남 건설사 (단위: 억원)

순위	광주 전국 전남(전년도)	업체명	금액	지역
1	13(12)	금호산업(주)	2조2538	전남
2	43(33)	남양건설(주)	6866	"
3	49(42)	호반건설	5969	"
4	56(60)	우미건설(주)	4651	"
5	59(46)	금광기업(주)	4311	"
6	87(94)	남해종합개발	2423	"
7	94(104)	중흥건설(주)	2310	광주
8	112(113)	동광건설(주)	1798	전남
9	119(122)	(주)남해건설	1698	"
10	123(109)	남화토건(주)	1564	"
11	124(277)	보성건설(주)	1561	"
12	137(154)	남광건설(주)	1386	광주
13	140(85)	대주건설(주)	1364	전남
14	144(158)	해동건설(주)	1329	"
15	148(146)	남영건설(주)	1302	"
16	162(165)	제일건설(주)	1106	"
17	164(203)	남해종합건설(주)	1096	광주
18	168(134)	(주)모이종합건설	1054	"
19	180(192)	가신토건(주)	1010	전남
20	182(196)	남도건설(주)	1001	"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당신을 빛나게 할 바캉스 패션 제안
광주 신세계 패션스토리의 '플라스틱이일랜드' 매장에서 고객들이 휴가철 바캉스 아이템을 고르고 있다. 올해 바캉스 'it아이템'으로는 쉬폰 소재의 표범무늬 원피스와 그물로 된 핸드백 등이 인기를 받고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고졸채용 2013년 15%로

금융투자협, 특성화고 산학 프로그램 전국 확대

금융투자업계는 고졸 출신 신규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3년까지 15.4%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28일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와 사교육비 문제 해소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고졸 채용 비율을 2010년 4.7%(134명)에서 올해 8.8%(293명), 내년 13.2%(362명), 2013년 15.4%(408명)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투자 업무에 적합한 예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현재 3개교와 추진중인 특성화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졸인력의 지속적인 채용지원을 위해 고교증권경시대회 수상자, 자격증 소지자, 고교인턴 이력자 등으로 우수 고교 인재풀을 만들어 공

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또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중에 인턴제를 지원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집중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료를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취업 이후 단계에서 업무 적응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분야별 맞춤식과정이 들어간 고졸인력 표준 경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투협 장건상 부회장은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성공경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회내 인재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고졸인력의 채용여건 개선과 차별적 인사관행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고졸 채용 본격화

내달 7일까지 지역출신 100여명 우선 선발

광주은행이 하반기 인턴채용부터 고졸출신 채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28일 동구 계립동 수수장호텔에서 광주·전남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들을 초청, '광주·전남 특성화고 인턴채용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7일까지 100명 규모 광주은행 인턴채용과 이중 30여명은 지역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발된 고졸출신 광주은행 인턴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턴 10여명을 광주은행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4명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해 경제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고졸출신 직원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 각각 10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 채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자호기자 lion@

2분기 15~29세 37.9%…30~59세 70% 기록
광주 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이 30~59세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청년센터'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해 내놓은 '2/4분기 광주청년고용동향'에 따르면 2/4분기 광주시의 생산가능청년(15~29세) 31만명 중 청년고용률은 37.9%(11만7000명)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60세 이상과

50~59세의 고용률이 각각 5.4%포인트, 4%포인트 상승해 광주시 30~59세의 고용률이 7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또 서울 등 7대 특광역시의 청년 고용률(15~29세)과 비교하면 광주 지역 청년 고용률은 부산(33.0%), 대구(37.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으며 한창 취업할 나이인 25~29세의 청년 고용률은 63%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임금근로자 50만8000명 가

운데 상용근로자는 29만6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8000명이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16만6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했다.

광주청년센터 류철홍 사무국장은 "고용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이는 임시직과 비정규직 효과로 봐야 한다"며 "광주 지역 청년들의 고용과 임금문제는 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층에 취업 자금을 투입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역 제조업 8월 업황 부진 예측

원자재 가격상승·내수 저조 등 BIS 하락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이 오는 8월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

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11년 7월 광주·전남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7월 업황BSI

는 84, 8월 업황전망BSI는 88로 전달보다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7월 매출BSI와 채산성BSI는 전달보다 각각 3포인트와 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인력사정BSI(90~96)는 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26.8%), 불확실한 경제상황(12.3%), 내수부진(11.7%), 자금부족(6.5%), 환율(6.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5.7%) 등을 꼽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수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istar.co.kr

광주 벽온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부산 벽온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51)651-5110

서울 벽온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2)52-8845



전국
점망

리포트

리포트